

---

# 삶 또는 사랑 · 자연 · 노동의 가치화를 위하여

김재홍 · 문학평론가경희대학교 교수

---

이가림 시인(1943~)은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빙하기」가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해 온 이 땅의 대표적인 중진 시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지금까지 시집 『빙하기』(1973),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1981), 『순간의 겨울』(1995), 그리고 『내 마음의 협궤열차』(2000)에 이르는 동안 서정과 지성, 사상성과 예술성의 균형과 조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해 온 역량 있는 시인인 것이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지금까지 정지용 문학상, 편운문학상, 후광문학상, 유심작품상 등 다수의 좋은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시단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 1. 「빙하기」 1960년대 겨울, 그 낭만적 우울

이가림의 초기 시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의 와중에 허무주의와 낭만적 우울에 질게 물들었던 60년대의 정신사적 풍토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그의 시는 민주화라는 이념적 지표와 근대화라는 현실적 목표 사

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던 1960년대 이 땅의 정신사적 배경과 예술사적 분위기 속에서 배태되고 전개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는 뜻이다. 데뷔 시 「빙하기」가 바로 그러한 폐시미즘으로서 시대의 표정성을 담고 있는 한 예가 된다.

그 혈벗은 비행장 옆/ 밝은 에레미야 병원 가까이/ 스물아홉 살의 강한  
 그대가 죽어 있었지/ 장 바티스트 클라망스/ 스토브조차 꺼진 다락방 안  
 추운 氷壁 밑에서/ 검은 목탄으로 텅상한 그대 어둔 얼굴을 보고 있으면/  
 킬리만자로의 눈 속에 묻혀 있는 표범 이마./ 빛나는 대리석 토르소의 흰  
 손이 떠오르지./ 지금 낡은 에레미야 병원 가까이/ 지붕에도/ 눈은 내리고  
 / 겨울이 빈 허리를 쓸며 있는 때./ 캄캄한 안개 속/ 침몰하여 가는 내 선박  
 은/ 이제 고달픈 닻을 내리어 정박하고서/ 축축히 꿈의 이슬에 잠자는 영  
 원인 것을./ 짙은 밤 부들가 한 모퉁이로/ 내 아무렇게나 혼자서 떠나보내/  
 갈색머리 흑인여자의 서러운 이빨같이/ 서걱이는 한겨울 밤바다 살갓은/  
 유리의 달에 부딪쳐 바스러지고/ 죽음보다 고적한 외투 속의/ 내 사랑은/  
 두 주일이나 그냥 있는 젓빛 엽서/ 조금씩 미쳐가며 나는 무서운 醉眼인 채  
 / 황폐한 자갈밭을 건너/ 흐린 가스등 그들이 우울한 시장가에서/ 눈은 내  
 리고/ 하얀 囚衣입은 천사처럼 잠시 죽어 봤으면 생각하다가/ 포효의 거대  
 한 불꽃으로나 멸망하기를 소망하다가./아아 자꾸만 목이 메이고 싶어지는  
 / 내 고단한 木管의 노래는 떨려/ 나뭇 끝에 마지막 한 장 가랑잎새로 지는  
 것을/ 쓸쓸히 웃으며 있네./ 지난 생 마르탱의 여름 밤주막에서/ 빨갭게 등  
 불을 켜 달고/ 여린 불빛들이 우리 잔등에 떨어져 와닿는./ 들끓는 소주를  
 독하게 마시며 울었지./ 장 바티스트 클라망스/ 그대 건강한 의사가 되겠다  
 고 여름내 엄청난 야망은 살아/ 자기 안의 한 무더기 폭악에 放火도 했지만  
 / 참혹하게 파손되어 간 內室이었음을./ 어느 저녁 식탁에선가, 눈물 글썽  
 이게 하는/ 그대 슬픈 소식을 건네 들었지./ 지금은/ 웃고름처럼 나무끼는  
 달빛에 젖어/ 마른 깃별 바닥으로 배회하다/ 무릎까지 빠지는 맨발의, 괴로  
 운 밤 게(蟹)가 되어서 돌아오는/ 오뇌의 회오리 바람에 은빛 음계들이 머  
 리칼마다/ 흩날리며 있네./ 그 드뷔시 찾집 유리 속의 금발이 출렁이는 인

형을/ 젖은 눈이 성에 낀 창 밖을 보고/ 수린대는 목소리들 잔 둘레로 넘쳐  
나/ 비듬처럼 쌓여 가는데/ 잊히인 의자 아래 이랑져 오는 음악의 꽃빛 눈  
부시는/ 바람과 소리여,/ 이 침전하는 葬送의 파도가에 앉아서 단 한번/ 고  
운 색깔이 이롱진 魚眼의 나는/ 뜨거운 두 손으로 피곤한 이마를 물어보네.

그의 시 「빙하기」에는 바로 60년대 문학 지망생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낭만적인 우울이 넘쳐흐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그 시절의 시에  
유행하던 ‘겨울’ 상징이 그렇고, 또 “에레미야 병원/ 장 바티스트 클라망  
스/ 킬리만자로/ 썩 마르탱의 밤주막/ 드뷔시 찻집”과 같은 서양풍의 이  
국적 소재들이 막연하면서도 신비스런 그 어떤 환상과 그리움을 불러일  
으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는 불문학도로서 그가  
꿈꾸며 동경하던 프랑스의 겨울 하늘과 오늘 당대의 서울 풍경이 서로  
어울리면서 가난과 외로움에 떨면서 작은 등불 하나 켜들고 서 있는 젊  
은 날 시인의 초상이 잘 묘사돼 있는 것이다. 스토브조차 꺼진 낡은 아파  
트,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며 어둠 속에 자주 멈춰 서던 고물 자동차 때  
문에 속 썩으면서도 금발의 프랑스 여자며 흑인 여자를 떠올리고 들끓는  
깎바도스며 독주를 아프게 꿈꾸면서 속으로 울고 있는 젊은 날 시인의  
낭만적 우울이 잘 형상화돼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시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슬픈 반도 꼬레의 가난한 시인이라  
는 것을 인식할밖에…。 그러한 시인적 숙명을 엄혹하게 느끼기까지는  
바로 이러한 젊은 날의 무모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서구 취향의 걸멋이나  
감상적 방황 및 우울이 반드시 필요했으리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것은 시적인 자아 발견에 따른 자아 확립의 과정이면서 인간애와 운명애  
에 깊이 눈뜨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와 같은 정신적 성숙의 한  
과정이었다는 뜻이 될 수 있겠다.

그러고 보면 오늘 2000년대 겨울밤의 길목에서 60대 초로에 접어들어  
슬픈 반도의 한 흐린 주막에 홀로 앉아 새삼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그의

모습이 유난히 서글픈 느낌을 주는 것도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 2. 순수 서정 또는 생명의 가치화

기본적으로 이가림의 시는 순수 서정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생명의 가치화를 통한 생명 사랑·자유 사랑·평화 사랑의 길을 추구하고 있어 관심을 환기한다. 「물총새잡이의 기억·1」이 그 대표적인 한 경우에 해당한다.

어디신가  
황색부리 하늘색 허리의  
물총새가 날아와  
시냇물에 닿을락 말락  
총알같이 빠르게 물살 튕기며  
번뜩이는 찬란한 배때기의  
한 마리 피라미를 물고  
커다란 무지개의 활[弓]보다 높이  
가뭇없이 사라진 뒤

몽게구름 속에  
분명 등지를 틀고 있을  
그 물총새의 푸른 울음소리 컷가에 맴돌아  
하 많은 여름날  
고무줄 새총으로  
새하얀 신기한 구름 걸려 있는  
천길 포플러의 우듬지를  
얼마나 수없이 쏘았던가

오늘날 산업 문명 자본의 시대에 서정시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것

인가? 플라스틱, 철근 콘크리트, 유리, 비닐, 석유 등 온갖 광물성으로 가득 차고 공룡 도시, 회색 도시를 기계 인간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그것은 한낱 현실도피적인 꿈의 표현 또는 순수 지향성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적 상상력 또는 유년 회상에 따른 복고 취미 정도일 뿐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늘날 생명 의식을 노래하는 좋은 서정시들이란 메마른 기계 시대, 불모의 연대에 생명 회복을 갈망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회원하는 신희머니즘 정신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온갖 공해와 기계문명, 그리고 상업자본의 폭력 아래 신음하는 오늘의 고단한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맥박과 생명의 숨결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간적 호흡과 체온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맑은 정신의 샘플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 시가 그렇다. 어린 시절 그리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전원 풍경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그것은 이미 철 지난 유행 가쁨으로 여겨지거나 이발소의 풍경화 정도로 치부되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이치와 역사의 법칙이 꼭 그렇게 새로운 것·신기한 것만 추구하고, 힘 있는 것·유행적인 것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비록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차이콥스키의 음악들이 한참 낡아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인간 정신의 원형이 살아 숨 쉬고 생명 사상의 숨결이 여전히 굽이치고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점에서 오늘날 새롭게 쓰이는 순수 서정시들이 자연 사랑과 생명 사랑,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그리움의 결정 작용(結晶作用) 또는 사랑의 가치화

이와 함께 이가림의 시는 지속적으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써 사랑에

대한 탐구와 그 가치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주요 특징이 된다.

언제부터

이 잉겔볼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들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안고

땡굴고 또 땡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층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꺾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석류」 전문

가을이 무르익고 익어서 어느 날 푸른 하늘 창유리를 와장창 깨뜨리면 석류의 맑고 붉은 치열들이 씩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까. 석류 열매 익어 터져 나오는 모습은. 아니면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처녀의 수줍은 그리움 또는 농익은 여인의 숨겨진 관능이 활짝 참았던 말문을 터뜨리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석류 알 병글어지는 모습을 참고 참았던 그리움 또는 열정이 터져나오는 것으로서 알알이 영근 석류는 시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잉겔볼 같은 그리움/ 여름내 앓던 몸살/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으로 석류를 바라본다. 아울러 석류가 열리는 모습을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라면서 석류 알을 ‘홍보석의 슬픔’으로 묘사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움의 열매, 사랑의 힘이 마침내 석류로 알알이 응결된 것이기에 ‘홍보석의 슬픔’, 즉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결정 작용(crystallization) 또는 사랑의 가치화로 집약시켰다는 뜻이 될 수 있으리라.

아마도 석류를 통한 이러한 그리움과 슬픔의 결정 작용 또는 사랑의 가치화는 석류의 생명 과정을 묘사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익어서 터지는 인생사의 아픈 모습을 노래한 것이고, 아울러 김춘수의 시 「꽃」처럼 한 편의 시가 탄생되는 존재론적 과정을 형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아마도 생명 탄생이란 사랑이 성숙돼 가는 일, 그리고 창작의 과정처럼 그만큼 고통과 인내, 그리움과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 4. 인간과 자연 또는 노동의 가치화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가림의 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시 「바지락 줍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된다.

바르비종 마을의 만종같은  
저녁 종소리가  
천도복숭아 빛깔로  
포구를 물들일 때  
하루치의 이삭을 주신  
모르는 분을 위해  
무릎 꿇어 개펄에 입맞추는  
간절함이어

거룩하여라  
호미 든 아낙네들의 옆모습

여름날 저녁이면 문득 서해안 어느 갯벌에라도 나가 아름답게 불타며  
저물어가는 낙조를 바라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그럴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가림의 이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 시에는 두 개의 풍경이 하나로 겹쳐져서 새로운 한 폭의 성화(聖  
畵)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한 장의 그림은 바로 밀레의 ‘만  
종’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서해 어느 포구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깔  
고 바지락을 줌는 아낙네들이 열심히 노동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바르비종 마을의 풍경, 즉 밀레의 ‘만종’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감동  
은 한마디로 대지에의 감사이며, 노동에 대한 찬양이고, 신(神)에 대한  
경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리라. ‘만종’의 저녁 종소리라는 청각 심  
상이 “천도복숭아 빛깔로 포구를 물들일 때”라는 시각 및 촉각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이러한 신에 대한 감사와 외경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 되  
겠다.

아울러 이 시는 노동의 어려움과 그 노동 가치의 숭고함을 노래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함께 삶의 깊이, 그리고 신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거룩하여라/ 호미 든 아낙네들의 옆모습”이라는 결구



속에는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경심과 함께 예술적 아름다움의 인식이 한 차원 높은 신의 질서로 고양돼 가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다.

인간의 삶으로서 지상의 척도와 신의 세계로서 천상의 척도가 하나로 화응되는 이른바 만상 조응(correspondence)의 미학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다.

## 5. 운명 의식과 비애의 가치화

자연 연령 60여 세, 그리고 시작 활동 40여 년을 넘기면서 이가림의 시는 삶의 고단함과 생명의 슬픔, 그리고 운명 의식에 대한 비극적 탐구를 보여주고 있어 새삼 노익장의 면모를 과시한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육십년도 더 넘게 끌고 온  
뀌매고 기운 헝겊 투성이의  
내 슬픈 부대자루를  
해지는 고갯마루에 잠시 부려놓고  
하늘에 밑줄 친듯 그어진 운평선(雲平線)에  
망연히 한눈 팔고 있노라니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허연 수염 휘날리는 조각구름 하나가  
불현듯 다가와  
축 쳐진 내 어깨를 두드리며 타이르네

“그동안 많이도 수고했네만  
네 부대자루가 닳아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끌고 가 보게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  
그 미완성의 정점에 다다를 것이니  
그때 푸른 심연의 바다 한 가운데  
서슴없이 뛰어내리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육십년도 더 넘게 끌고 온  
꽤매고 기운 형질 투성이의  
내 슬픈 부대자루,  
다 닳아진 한 조각 걸레가 되기까지  
해 떨어지기 전  
생의 마루바닥을  
무릎 꿇고 더 닦아야 하네

—「귀가, 내 가장 먼 여행」2」

2008년 『유심』 작품상 수상작인 이 시는 매일 되풀이되는 출퇴근 과정, 즉 귀가를 지상에서 가장 먼 여행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나날의 삶, 일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것이며 또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어 관심을 환기한다. 하루치의 삶을 벌기 위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나가는 출근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 과정을 「귀가, 내 가장 먼 여행」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 삶의 진실을 예리하고 섬세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깝고도 먼 여행으로 상징되는 삶이, 일상의 반복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며, 또 그것이 인생의 과정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삶이란 이러한 출근과 퇴근 과정으로서, 출가와 귀가의 무수한 반복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 이 시는 만남과 헤어짐,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로 되풀이되는 삶의 원리, 인생의 법칙을 출근과 퇴근, 즉 귀가로서 그것도 '내 가장 먼 여행'이라는 비애의 아이러니로 묘파한 데에서 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넓고 지친 육신을 부대자루로, 인생을 낭떠러지로 보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육신을 죽음의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삶의 현상과 본질을 깨달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폐시미즘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 시를 현대시의 한 절창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리라.

## 6. 맺음말

인생이라는 무거운 주제 또는 삶이라는 폭넓은 테마를 탐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예술적 형상성을 성취해 내는 이가림의 솜씨는 가히 이 시대 제1급의 수준이라 할 만하다. 관념과 감각, 주제와 표현, 사상성과 예술성, 그리고 현실성과 이상성을 함께 포괄해 내면서 그것을 서정적 조화와 지성적 등가의 미학으로 끌어올리는 그의 시창작 방법론은 높이 평가돼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년에 이르러 그의 시는 운명 의식과 허무 의지를 비애의 정서로 아름답게 끌어올림으로써 21세기 이 땅 현대시가 나아가야 할 철학적·예술적 서정시의 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